

#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지 이미지와 만족도

양 정 화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상학과

## I. 서 론

청소년기로 대변되는 중·고등학생은 자기가 평가한 자아상이 아닌 타인이 평가한 자아상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심리적 불안 또는 신체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복과 같은 구체적인 외형을 통하여 소속감을 형성하고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인정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경향은 자칫 의복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낳기도 한다. 의복에 대한 필요 이상의 관심을 억제시키고, 의복을 동일함으로써 건전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 교복 착용을 하고 있다.<sup>1)</sup>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기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교에서 규정하는 교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청소년기의 의복에 대한 만족도는 사회적 현황에 대한 적응 및 자신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많은 시간 동안 착용하는 교복에 대한 만족도는 학교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박정희<sup>2)</sup>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보다 만족스럽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복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민족 자긍심을 기르기 위해 한복을 변형한 교복 디자인, 활동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디자인과 소재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문화관광부는 1996년 3월, 21세기 국가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우리 문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대상물 선정 작업을 추진하였는데, 여기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이 전통복식이었다. 이와 더불어 ‘전통복식 입는 날’이 제정되어 우리 옷 입기 캠페인이 일어났고, 전통 복식을 우리 생활 속에 정착시키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생활 한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sup>3)</sup>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1998년 처음으로 진주 삼현여고에서 생활한복 교복을 채택하였다. 이후 부산 가야고, 안동 성창고, 서울 국악예고, 수원 태장고, 민족사관 고교 등에서도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을 채택하였다.

생활한복을 교복으로 입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sup>4)</sup>에서 응답자의 79.8%가 “편리성과 디자인

1) 윤원순, “청소년과 심리적 특성, 또래 수용과 의복 태도와의 관련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p. 1.

2) 박정희, “여고생의 교복착용 태도와 의복행동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p. 2-51.

3) 고정민, 채금석, “생활 한복에 대한 의식구조와 선호도에 따른 디자인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5권 23호 (1999), pp. 654-655.

4) 권혁주, “젊은층의 생활한복에 대한 의식조사,” *광고정보* 212호 (1998년 11월), pp. 95-99.

이 괜찮다면 교복으로 입어도 좋다”고 응답해 생활한복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한편 생활한복 착용의향에 대한 질문에는 20대 이상 연령층의 경우 87% 이상이 호의적이었으나 10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생활 한복에 대한 호의도는 일반적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청소년의 의견은 아직도 그다지 호의적이지 못하다고 하겠다. 청소년들에게 교복으로서 생활한복의 착용 기회를 주면서, 아울러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의 만족도를 높여 준다면, 이는 생활한복에 대한 호의적 태도와 지속적인 생활한복 소비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전통미에 대한 긍정적 자세를 청소년기에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생활 한복 시장을 활성화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착용자의 교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만족도 평가와 선호 디자인 및 태도에 대한 조사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복 만족도나 태도에 관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교복착용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고, 뿐만 아니라 생활한복 교복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을 착용하는 학생들의 만족도와 호의도를 알아봄으로써, 생활한복이 교복으로서의 기능적 측면은 물론 학생들의 사회 심리적 욕구만족도를 한층 높이는데 필요한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아울러 생활한복 교복은 기존의 교복과는 다른 디자인이기 때문에 동료의식을 중시하는 청소년들에게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생활한복 교복을 착용하는 학생과 착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이미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생활한복 교복의 확산 가능성 및 호응도 파악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교복의 변천

우리나라 교복의 변천에 대해서 시기 순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886년 8월 스크랜톤(Mrs. M. F. Scranton) 여사가 이화학당을 설립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교복인 붉은 면목옷감으로 만든 발을 덮는 긴 치마와 짧은 저고리를 학생들에게 착용시켰다. 현 정신여학교의 전신인 연동여학교의 초창기 복식도 이화의 초창기 여학생과 비슷한 복식을 착용하였다.<sup>5)</sup>

1898년에 제정한 배재학당의 당복이 남학생복의 시초였다. 이 당복의 형태를 보면 양복에 앞자락단과 소매 끝, 마지 좌우의 걸 솔기에 태극을 상징하는 청홍선 두 줄을 넣었고 체모에도 역시 청홍선을 둘렀었다.<sup>6)</sup> 1907년 숙명 등의 여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학생 양장 교복을 착용하기 시작한다.<sup>7)</sup> 두발은 소위 ‘허사시가마’라는 트레머리를 하였고 분홍색으로 안을 단 ‘본넷(Bonnet)’ 모자(여름철엔 밀집으로 된 같은 형 모자)를 착용하고 구두를 착용하였다.

1930년대에는 숙명을 선두로 많은 학교들이 다시 양장 교복을 입게 된다. 1938년에 와서는

5) 최현주, “중등학교 여학생 교복에 생활한복 도입을 위한 학생선호도 조사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p. 3-4.

6) 박정희, “여고생의 교복착용 태도와 의복행동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 13.

7) 윤현정, “여고생 교복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 5.

일제는 민족말살 정책으로 한복착용을 금지하고, 여학생들의 교복을 거의 모두 양장으로 개정하여 한복 교복을 입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1940년 초에 와서 이화여전은 몸매에 운동화를 신었고, 숙명여자학교도 동복은 상·하 흑색으로 개정하는 등 대부분의 여학교의 교복이 양장으로 바뀌었다.

1939년에 시작된 제 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일본은 전국의 남자들에게 국방색의 국민복(정식명칭은 국민정신총동원복)을 칙령으로 착용하게 함에 따라 이후의 남학생 교복은 모두 국민복으로 통합되었다.

해방 후 각 여학교들은 교복을 개정하여 1969년까지 각 학교의 특성과 개성을 살린 교복이 착용되었다. 검은색, 청색 바지나 플레어스커트에 흰 칼라를 덧붙인 상의, 혹은 허리에 벨트를 한 감색 투피스 형태가 당시 여학생 교복의 대표적인 형태였다. 한편 남학생의 교복은 해방 전의 교복을 답습하여 동복은 검정색 일색의 바지와 재킷이었고 하복은 파란색이나 흰색셔츠에 회색바지가 대부분이었다.

1969년 문교부의 중학교 평준화 시책이 실시되면서 시도별로 교복이 획일화되었다. 획일화는 다른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두발 제한의 경우에는 남학생은 1~2cm 이하를, 여학생은 귀밑 3cm이하의 단발만을 허용하였다.

1982년 1월 2일 발표된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조발(調髮) 및 교복자율화 조치에 따라 1982년 새학기부터 학생들의 머리모양이 자유화되었고 1년간의 준비과정 후 1983년부터는 교복 자율화가 실시됨에 따라 중·고등학생들이 자유복을 입게 되었다.<sup>8)</sup> 복장 자율화 조치는 학생들에게 개성과 독창성을 길러 주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빈부 차에 의한 위화감 조성, 사치성 조성, 생활지도의 어려움, 학교에 대한 소속감 결여 등의 역기능이 지적되면서 교복의 부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sup>9)</sup>

교복자율화 시행 2년 후인 1986년 2학기 때부터 문교부에서 다시 복장자율화 보완조치를 채택해 학교장의 제량에 따라 교복을 입거나 자유복을 입도록 하였고 1990년 8월에 다시 '교복 착용을 적극 권장하라'는 공식 지시를 내렸다. 이후 점차 교복 착용이 증가되어 1991년 76%, 1999년 95% 이상의 학교가 교복 착용을 실시하게 되었다. 교복 재 착용초기에는 활동성 및 학생의 품위에 초점을 둔 것으로 미적인 면에서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점차 '교복 브랜드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기성복의 유행이 가미된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의 교복으로 교체되고 있다.<sup>10)</sup>

1998년 처음으로 진주 삼현여고에서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을 채택한다. 삼현여고에 이어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을 채택한 학교가 부산 가야고, 안동 성창고, 서울 국악예고, 수원 태장고, 민족 사관 고교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 2. 교복 만족도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교복을 착용하며 보내게 된다. 교복에 대한 만족도는 정서적, 사회적 자아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

8) 최현주, "중등학교 여학생 교복에 생활한복 도입을 위한 조사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 6-15.

9) 조진숙, "교복 디자인 개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p. 1.

10) 윤현정, "여고생 교복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 6-7.

서 김윤희<sup>11)</sup>는 교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교복의 활동성, 온도변화 적응 등의 보완을 위해 보다 다양한 색상, 종류, 디자인, 소재 등의 개발이 요구되며 교복착용일수도 융통성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희<sup>12)</sup>는 교복만족도와 의복관심도의 상관관계에서, 신분 상징성은 의복관심도의 정속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유행성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 외모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심리적 안락감은 유행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 정속성, 동조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 박정희<sup>13)</sup>의 연구에서 교복만족도의 신분 상징성과 관련이 있는 의복행동의 변인은 안락성, 정속성, 승인성 순으로 나타났고 신분상징성과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 교복만족도의 심미성에 영향을 주는 의복 행동 변인은 심미성, 안락성순으로 나타났으며, 교복만족도의 심미성과 의복행동의 심미성은 부적 상관관계를, 안락성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교복만족도의 경제성과 기능성에 영향을 주는 의복행동 변인은 심미성으로 나타났으며, 교복만족도의 경제성, 기능성과 의복 행동의 심미성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박정희는 연구 결과에서 민족 자긍심을 기르기 위해 생활 한복 디자인 교복의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윤현정<sup>14)</sup>은 교복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가 부정적인 경향이 있고 가장 큰 이유는 교복 디자인에 있다고 하였다. 감각적이고 세련된 디자인과 스타일을 중시하며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개성미와 새롭고 독특하며 재미있는 패션을 원하는 근래 여고생의 패션의식을 살펴본 결과 교복디자인이 촌스럽거나 개성이 없고 활동이 불편한 것으로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여학생의 과반수가 교복을 예쁘게 하기 위해 고쳐 입어 본 경험이 있었다. 윤원순<sup>15)</sup>의 연구에서는 여고생의 교복만족도 요인분석 결과, 적절성, 표현성, 관리성의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여고생들은 교복의 적절성, 관리성, 표현성의 순으로 만족한다. 또한 교복이미지에서 교복이미지가 긍정적일수록 교복 만족도가 높아졌다. 교복의 단정한 이미지와 적절성의 만족도, 유행에 민감한 이미지와 표현성의 만족도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나타났다. 특히 단정한 이미지를 선호할수록 교복 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1998년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이 처음 등장한 이후 생활한복 교복에 대한 만족도와 선호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최현주<sup>16)</sup>는 교복선호도의 조사에서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의 주된 장점으로 애국심 고취에 도움, 편리한 착용 및 활동의 자유로움, 행동이 조심스러워진다는 점을 들고 있으며, 단점으로는 활동의 불편함, 색상, 튀어서 어색하다 등이라고 하였다. 생활 한복 디자인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삼현여고 학생들은 양장교복을 착용하는 타 학교 학생들에 비해 높은 교복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고 하였다. 양장교복 착용자와 생활한복 교복 착용자들은 교복에 있어 디자인 치수규격은 기존 양장의 치수규격과 비슷한 수준으

- 
- 11) 김윤희, “여자 중학생의 교복에 관한 태도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p. 50.  
 12) 이상희, “남녀 고등학생의 교복만족도, 의복관심도, 자아개념 - 강원도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p. 54-55.  
 13) 박정희, “여고생의 교복착용 태도와 의복행동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p. 50-51.  
 14) 윤현정, “여고생 교복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 77.  
 15) 윤원순,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또래 수용과 의복태도와와의 관련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 60.  
 16) 최현주, “중등학교 여학생 교복에 생활한복 도입을 위한 학생선호도 조사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 50.

로 선호하였으며, 디자인에서는 당코깃과 동그레깃을, 소재와 색상에서는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을, 분양방법으로는 자수를 선호하고 있다고 하였다.

정현주, 목은혜, 한유정<sup>17)</sup>은 여고생의 생활한복 교복착용에 대한 만족도와 교복착용태도, 의복행동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의 디자인성과 신분상징성, 활용성인 교복착용태도 요인들이 긍정적일수록 생활한복디자인 교복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인 교복에 대해 만족과 개성과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의 경우 개성을 중시여기는 학생일수록 교복 만족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한복 교복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숙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복행동인 유행에 관심이 있는 여고생들도 실질적인 활동성, 체형의 결점 보완 등의 우리 옷 교복착용태도인 착용성과 정숙성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위 연구에서 교복만족도는 정서적, 육체적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게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며, 교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디자인, 소재 등의 개발과 함께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의식이나 태도의 파악과 개선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 3. 생활한복 이미지

생활한복은 전통 한복을 변형시킨 의복으로, 개량한복, 변형한복, 실용한복이라는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다. 1980년대까지 주로 사용되던 개량한복이라는 용어에서의 개량이라는 단어는 한복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고 평가되어, 1990년대 후반부터는 생활한복이라는 용어로 정착되기 시작하였다.<sup>18)</sup>

의복 이미지란 의복이 전달해주는 전반적인 느낌이며 지각이다.<sup>19)</sup> 의복을 보고 느끼는 감정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전반적인 의복의 느낌은 의복 채택과 착용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를 생활한복에 적용하여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혜원과 이주현<sup>20)</sup>은 전통한복과 생활한복에 대하여 개성적, 특이함, 전통성, 민족주의, 운동권, 활동이 불편함 등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였다. 강혜원과 고애란<sup>21)</sup>은 장식이 있거나 없는 전통한복, 장식이 있거나 없는 한복에 가까운 응용스타일, 양장과 한복이 같은 정도로 응용된 스타일, 양장에 가까운 한복 응용스타일 등의 6개의 자극물 중에서 한복 응용스타일이 전통한복보다 보기 좋고, 품위 있으며, 현대적이고, 실용적이라고 지각되었다고 하였다. 정인희, 김선경, 조효숙<sup>22)</sup> 등은 양복과 비교한 생활한복 이미지 평가에서 '편하다'와 '개성적이다'를 대표적 이미지로 생각한다고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주된 이미지는 품위, 우아함, 편안함, 현대적, 개성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노숙해 보이는 유행에 뒤떨어지는 것 등이 부정적

17) 정현주, 목은혜, 한유정, "우리 옷 교복 착용 여고생의 교복만족도와 의복행동의 관계," *한국의류학회지* 5권 26호 (2002), pp. 654-662.

18) 심준영, 김용숙, "생활한복의 착용 상황에 따른 이미지와 구매의도," *한국복식학회지* 3권 53호 (2003), p. 156.

19) 정은희, 이은영, "의복이미지의 구성요인과 평가 차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4권 16호 (1992), pp. 379-391.

20) 강혜원, 이주현,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의복의 의미(2) - 한복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권 14호 (1990), pp. 77-84.

21) 강혜원, 고애란, "여자한복의 인상형성 연구 - 디자인의 변형과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권 15호 (1991), pp. 211-227.

22) 정인희, 조효숙, 이희승, "생활한복의 구매실태 연구," *한복문화* 1호 (1998), pp. 67-81.

이미지로 자각됨을 알 수 있다.

고정민과 채금석<sup>23)</sup>은 생활한복 착용자의 첫 인상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특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일 것으로 보인다는 응답이 많았고, 첫 인상은 좋지만 본인이 실제로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망설이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최은영<sup>24)</sup>은 생활 한복이 품위 있고, 지적인 이미지로 평가되는 반면, 노숙해 보이는 이미지, 세련미의 부족, 유행에 민감하지 못한 이미지 등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구매나 착용을 기피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영자와 류은정<sup>25)</sup>은 생활한복의 이미지로 품위 있는, 편안한, 보수적인, 혁신적인 이미지의 4가지로 도출했다. 이 중 품위 있는 이미지가 소비자의 구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보수적인 이미지는 부정적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준영과 김용숙<sup>26)</sup>의 연구에서 생활한복 이미지는 유행성, 우아함, 편안함, 혁신성, 전통성 등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평소보다 공식적인 상황에 지각되는 생활한복 이미지가 더 호의적으로 지각되었으며, 비공식적인 상황에서의 생활한복 이미지는 좀 더 유행성이 높고, 우아하며 혁신적인 것으로 지각되었다.

위 연구에서 생활한복 이미지는 품위성, 우아함, 전통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보수적이고 노숙해 보이는 이미지가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생활한복 교복에 적용하고, 생활한복 교복 이미지를 분석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데 부합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 문제

- 1) 현재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남녀 고등학생들의 교복만족요인과 만족도를 알아본다.
- 2)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 착용경험에 따른 교복 호의도 변화를 알아본다.
- 3)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지 이미지를 알아본다.
- 4)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지 이미지가,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 착용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알아본다.

####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표본은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을 착용하는 수원태창고등학교 1·2학년 남녀 학생 280명과 양장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서울 문영여자고등학교 1·2학년 140명, 경희남자고등학교 1·2학년 140명으로 총 560명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당시 모든 조사대상자는 7개월 이상의 교복 착용경험기간을 가지고 있었다.

23) 고정민, 채금석, "생활한복에 대한 의식구조와 선호도에 따른 디자인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5권 23호 (1999), pp. 654-666.

24) 최은영, "생활한복의 채택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0권 42호 (1999), pp. 43-58.

25) 임영자, 류은정, "생활한복의 구매의상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6권 39호 (2001), pp. 123-133.

26) 심준영, 김용숙, "생활한복의 착용 상황에 따른 이미지와 구매의도," *한국복식학회지* 3권 53호 (2003), pp. 155-163.

조사는 2003년 10월에 행해졌으며, 총 560부를 배부하여 536부를 회수하였으며, 응답이 부실한 65부를 제외한 47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3. 조사도구

설문지를 조사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설문지의 내용은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부분과 교복만족도 조사를 위한 부분, 생활한복의 이미지 조사를 위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교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은 정현주, 목은혜, 한유정<sup>27)</sup>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을 이용하였고, 인지하고 있는 생활한복의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은 정현주<sup>28)</sup>와 심준영, 김용숙<sup>29)</sup>의 연구를 참고하여 단정성, 유행성, 개성성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예비조사를 거쳐서 표현의 모호성을 수정·보완하였다. 인구통계적 특성에 관련된 설문 이외의 모든 문항은 리커트형 5점 척도이며 5를 매우 만족, 1은 매우 불만족을 의미한다.

###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해서 분석했다. 요인분석을 통해서 만족도와 생활한복의 이미지 요인을 분석하였고 교복만족의 성별차이와 생활한복 착용경험의 유무에 차이를 보기 위해서 빈도분석과 t-test를 실시하였다.

“매우 그렇다” 혹은 “매우 만족한다”는 5점, “그렇다” 혹은 “만족한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지 않다” 혹은 “불만족한다”는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혹은 “매우 불만족한다”는 1점으로 환산해서 평균치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 5. 용어정의

- 1)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 : 본 연구에서는 전통한복을 활동에 편하도록 변형시킨 형태의 교복을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이라 칭하였다. 1998년 생활한복 교복이 등장한 이후에 각종 매체와 연구에서 생활한복 교복, 한복 교복, 우리 옷 교복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왔으며 아직 통일된 용어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우리 옷 교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현재 착용되고 있는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이 전통한복에서 많이 변형된 형태임에 반해 우리 옷이라는 표현은 전통한복을 연상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생활한복 교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 2) 양장교복 : 기존에 널리 채택되어온 양장식 교복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과 구별되는 형태의 기존 교복을 양장교복이라 칭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 착용자의 교복만족요인과 만족도

- 27) 정현주, 목은혜, 한유정, “우리 옷 교복 착용 여고생의 교복만족도와 의복행동의 관계,” *한국의류학회지* 5권 23호 (2002), pp. 654-662.
- 28) 정현주, “우리 옷 교복 착용 남자고등학생의 교복만족도와 이미지 평가,” *한국의류학회지* 7권 26호 (2002), pp. 1105-1113.
- 29) 심준영, 김용숙, “생활한복의 착용 상황에 따른 이미지와 구매의도,” *한국복식학회지* 3권 53호 (2003), pp. 155-163.

1)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 착용자의 교복만족 요인

교복만족도에 관한 문항 중에서 신뢰도가 낮은 항목을 제외한 19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표 1 참조)

<표 1> 생활한복 교복 착용자의 교복만족 요인분석 결과 (Alpha = 0.8465)

요인	변 수	1	2	3	4	5	고유값	%분산 (%누적)
요인1 외관성	전통 한복선을 응용한 스타일이 마음에 든다.	0.72	0.23	0.05	0.04	0.35	5.452	27.258 (27.258)
	더 학생다워 보이는 것 같다.	0.71	0.16	0.06	-0.03	-0.09		
	민족적 자긍심을 갖게 한다.	0.70	-0.10	0.22	-0.07	-0.08		
	현재 생활한복 디자인에 만족한다.	0.65	0.24	0.05	0.06	0.37		
	다른 학교와 확실히 구분되어 좋다.	0.63	0.19	-0.18	0.12	0.19		
	체형의 결점을 보완해 준다.	0.56	0.36	0.10	-0.18	0.04		
	실루엣이 단정하다.	0.55	0.13	0.13	-0.16	0.32		
요인2 안락성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에 양장교복보다 좋다.	0.52	0.09	0.16	0.41	0.12	2.168	10.842 (38.100)
	땀 흡수력이 좋다.	0.17	0.74	0.09	0.19	0.20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0.16	0.71	0.18	0.17	0.12		
요인3 내구성	활동하기 편하다.	0.39	0.60	0.12	-0.22	0.01	1.471	7.357 (45.457)
	옷이 헐어지거나 뜯어지지 않는다.	0.01	0.10	0.42	0.11	0.08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0.04	0.23	0.69	0.19	0.07		
요인4 대용성	교복의 색이 변하지 않는다.	0.29	0.02	0.65	-0.15	0.16	1.216	6.078 (51.535)
	외출복 대용으로 입기 편하다.	0.03	0.16	0.21	0.70	0.05		
	타인의 이목을 끈다.	0.20	0.17	-0.11	0.65	0.03		
요인5 경제성	명절 집안 행사에 한복대신에 입을 수 있어서 좋다.	0.08	0.15	-0.16	0.63	0.09	1.008	5.038 (56.535)
	전통한복 교복은 더 저렴하다.	-0.03	0.11	0.04	0.16	0.80		
	추가비용(세탁, 보수 등)이 양장교복에 비해 적게 든다.	0.15	0.10	0.20	-0.03	0.66		



요인 1은 외형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외관'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착용에 따른 편안함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안락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교복의 소재의 내구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내구성'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4는 생활한복 교복을 교복 이외 목적으로의 사용 가능성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대용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5는 생활한복 교복을 착용할 때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 되어있어서 '경제성'으로 명명하였다.

## 2)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 착용자의 만족도

"매우 만족한다"를 5점, "대체로 만족한다"를 4점, "보통이다"를 3점, "불만이다"를 2점, "매우 불만이다"를 1점으로 해서 산출한 각 요인들의 만족도 평균치를 성별로 비교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았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학생의 외관성에 대한 만족도 평균치는 대체로 만족하는 경향에 어느 정도 가까운 수치이지만, 그 외 모든 요인들의 경우는 보통 정도의 만족도를 의미하는 평균치 3을 약간씩 밑돌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을 착용하는 남녀 학생 모두의 경우에, '착용성', '내구성', '대외성', '경제성' 요인의 만족도가 보통정도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 만족도의 성별 차이

요인	성별	F	M	SD	t-test
외관성	남	121	2.84	0.92	-3.757***
	여	119	3.26	0.78	
안락성	남	121	2.70	0.96	0.755
	여	119	2.61	0.92	
내구성	남	121	2.61	0.90	0.337
	여	119	2.57	0.95	
대용성	남	121	2.65	0.59	1.459
	여	119	2.55	0.47	
경제성	남	121	2.54	1.07	1.388
	여	119	2.36	0.93	

이렇게 남녀 모두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에 대하여 그다지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본 연구의 결과는, 교복 디자인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 못한 인상을 지니고 있다고 한 정현주<sup>30)</sup>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학생들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디자인 요인을 알기 위해 현재 착용하고 있는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에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여학생들은 하의

30) 정현주, "우리 옷 교복 착용 남자고등학생의 교복만족도와 이미지 평가," *한국의류학회지* 7권 26호 (2002), pp. 1105-1113.

길이와 허리선(빈도=49)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상의 길이(빈도=47), 상의 폭(빈도=45), 하의 폭(빈도=42) 순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여학생들은 수정을 희망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하의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하의 폭이 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불편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상의 폭이 넓고 허리선이 들어가지 않아 뚱뚱해 보이고, 상의 길이가 전통한복에 비해 길어서 멋스럽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하의가 신체치수보다 너무 많이 넓어서 평퍼짐해 보이며, 이것이 싫어 수선을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특히 1학년 여학생들은 교복 구입 시 3년간 입을 것을 고려하여 신체 사이즈보다 여유 있는 사이즈를 구입하게 되는데, 큰 사이즈의 교복을 입었을 경우 양장교복 보다 생활한복 교복이 더 어색 하게 느껴져서 불만이라고 하였다. 전체적으로 폭을 줄여서 몸에 꼭 맞게 입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결과는 청소년기의 여학생들은 갑작스러운 신체 성장에서 나타나는 체중증가를 겪으면서 이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갖게 되어,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부정적 평가를 하게 되고 마른 체형을 지향하는 현상이 나타나며<sup>31)</sup>, 근래에 교복을 변형하는 학생(52.6%)이 늘고 있는데 교복 변형의 이유는 몸에 꼭 맞도록 하여 날씬하게 보이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한 선행연구<sup>32)</sup>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을 착용하는 학생들과 양장교복을 착용하는 학생들 모두가 동일하게 지니고 있는 이러한 경향의 요구가 교복의 디자인에 반영되어야만 교복 만족도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 외 소매(빈도=31)의 한복 배래선이 식사시에 불편하다는 의견과 여밈(빈도=20)이 불안정해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남학생들은 가장 수정하고 싶은 곳으로 하의 폭(빈도=81)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상의 기장(빈도=47), 상의 폭(빈도=41), 하의 길이(빈도=37), 허리선과 주머니(빈도=31) 순이었다. 압도적인 불만 사항이었던(65.9%) 하의 폭에 대한 불만의 이유로 폭이 너무 넓어서 활동하기 불편하며, 양장교복의 바지가 좁아지는 경향이 있는 요즘에 생활한복의 넓은 폭 바지는 같은 또래가 착용한 다른 학교 교복들과 비교되어 불쾌하다고 하였다. 일부 남학생들은 이러한 불만 사항 때문에 개인적으로 수선을 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남학생들도 여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폭이 줄어들기를 바라며, 허리선이 들어간 스타일을 바라고 있었다. 상의 길이가 전통한복 저고리보다 길어 멋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이 남학생에게서도 나왔고, 아울러 많은 학생들이 전통한복은 멋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생활한복 교복이 너무 개량되어 어색하다고 응답하여 전통미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을 착용하는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결과는 한복의 전통미와 실용성 및 교복 착용자 자신들의 미적 가치를 겸비하는 교복에 대한 학생들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었다.

만족도의 성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들이 생활한복 교복의 외관에 대해서 남학생보다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다. ‘외관성’ 요인을 제외한 4가지 요인의 만족도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31) Higgins, Vookles, Strauman, Berenstein & Chaken, Slef-Discrepancies and Vulneradility to Body Disordered Eat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1).

32) 윤원순.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또래 수용과 의복태도와의 관련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 59.

〈표 3〉 교복의 수정희망 부위

수정요소	성별		Row total f(%)
	남	여	
상의 폭	41 47.7 12.9 6.7	45 52.3 15.4 7.4	86 ( 14.1)
상의 기장	47 50.0 14.7 7.7	47 50.0 16.0 7.7	94 ( 15.4)
하의 길이	37 43.0 11.6 6.0	49 57.0 16.7 8.0	86 ( 14.1)
하의 폭	81 65.9 25.4 13.2	42 34.1 14.3 6.9	123 ( 20.1)
주머니	31 75.6 9.7 5.1	10 24.4 3.4 1.6	41 ( 6.7)
여밈	24 54.5 7.5 3.9	20 45.5 6.8 3.3	44 ( 7.2)
소매	27 46.6 8.5 4.4	31 53.4 10.6 5.1	58 ( 9.5)
허리선	31 38.8 9.7 5.1	49 61.3 16.7 8.0	80 ( 13.1)
Column Total(%)	319 52.1	293 47.9	612 (100.0)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착용경험에 따른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 호의도 변화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 착용자의 교복 착용 전과 착용후의 생활한복에 대한 호의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의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 착용전보다 착용후의 호의도가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표 4〉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 착용 전·후의 호의도 변화

성 별	변하지 않았다	변하였다	Row total	변화내용 (N=117)				t-test
				착용 전 호의도		착용 후 호의도		
				M	SD	M	SD	
여	59 (49.6)	60 (50.4)	119 (100)	3.02	1.14	2.33	0.86	3.608***
남	64 (52.9)	57 (47.1)	121 (100)	3.61	1.15	3.05	1.27	2.289*
Column Total	123 (51.2)	117 (48.8)	240 (100)	3.16	1.23	2.89	1.21	3.872***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을 착용하는 학생 전체 240명 중에서 117명(48.8%)이 착용 후에 호의도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호의도 변화가 있었다는 학생의 성별 비율을 보면, 여학생은 51.3%, 남학생은 47.1%였다. 즉 51.3%의 여학생과 47.1%의 남학생이 호의도 변화를 보여,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호의도 변화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호의도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 123명을 제외하고, 변화한 사람 117명의 응답내용을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남녀 모두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을 착용하기 전보다 착용한 후의 호의도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부정적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 2. 고등학생이 인지하고 있는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 이미지

### 1)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에 대한 이미지 요인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 문항들 중에서 신뢰도가 낮은 항목을 제외한 14항목으로 요인분석을 한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표 7 참조). 요인 1은 단정한 느낌의 이미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단정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젊은 느낌의 이미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유행성'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자기 표출의 이미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개성'이라 명명하였다.

### 2) 착용 경험 유무에 따른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 이미지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을 착용하는 학생과 양장교복을 착용하는 학생의 생활한복 디자인 교

〈표 7〉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의 이미지 요인 (Alpha = 0.9011)

요 인	변 수	1	2	3	고유값	%분산 (%누적)
요인1 단정성	차분한	0.80	0.11	0.01	5.866	39.108 (39.108)
	단정한	0.75	0.06	0.29		
	깔끔한	0.73	0.17	0.27		
	고상한	0.71	0.13	0.28		
	부드러운	0.59	0.53	0.28		
요인2 유행성	세련된	0.33	0.78	0.20	1.668	11.117 (50.225)
	어려보이는	0.07	-0.70	-0.01		
	유행되는	0.24	0.63	0.25		
	매력적인	0.43	0.58	0.26		
요인3 개성	자신감 있는	0.17	0.26	0.71	1.234	8.228 (58.453)
	캐주얼한	-0.17	0.34	0.69		
	부드러운	0.30	0.10	0.63		
	위엄있는	0.41	0.08	0.56		
	독특한	0.42	-0.27	0.45		

복 이미지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았다.

‘개성’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단정성’, ‘유행성’ 요인에서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의 착용경험의 유무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정성’ 요인은 남학생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여학생의 경우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을 착용하는 여학생보다 양장교복을 착용하는 여학생들이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을 더 단정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성’ 요인의 경우에는 양장교복을 착용하는 남녀

〈표 8〉 착용경험 유무에 따른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 이미지 차이

요 인	성 별	양장교복 착용자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 착용자		t-test
		M	SD	M	SD	
단정성	남	3.11	0.80	3.12	0.90	-0.158
	여	4.00	0.64	3.66	0.87	3.524***
유행성	남	2.51	0.68	2.19	0.90	2.107*
	여	3.00	0.53	2.53	0.85	5.179**
개성	남	2.70	0.96	2.60	0.93	0.755
	여	2.65	0.60	2.55	0.47	1.46

학생 모두가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을 착용하는 남녀학생보다 '유행성' 요인을 더 많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 착용 경험이 없는 양장교복을 착용하는 고등학생이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을 착용하는 고등학생보다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및 제언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에 대한 고등학생의 만족도 및 호의도와 인지 이미지에 관하여,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법에 의해 고찰한 본 연구의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 (1)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 착용자의 교복만족 요인으로는 외관성, 안락성, 내구성, 대용성, 경제성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외관성 요인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그 외 모든 요인들의 만족도는 성별 차이 없이 보통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 (2)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주된 디자인 요소들은 여학생의 경우 하의 길이와 허리선, 상의 길이, 상의 폭, 하의 폭이었고, 남학생의 경우 하의 폭과 상의 기장, 상의 폭, 하의 길이, 허리선과 주머니였다.
- (3) 착용전기 전보다 착용한 후의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 호의도가 더 떨어졌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부정적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 (4) 고등학생이 인지하고 있는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 이미지 요인으로는 단정성, 유행성, 개성 요인이 추출되었다. 개성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체로 양장교복을 착용하는 고등학생이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을 착용하는 고등학생보다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현재 착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은 디자인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학생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전통 한복의 미를 살리되 실용성과 학생들의 미적가치관이 최대로 수렴된 디자인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므로 연구 결과의 확대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 착용 경험이 더 많은 3학년도 포함시킨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종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연구의 결과에서 생활한복 디자인 교복을 착용한 후의 호의도가 착용 전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후속연구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 참고문헌

- 강혜원, 이주현 (1990).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의복의 의미(2)-한복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4호 2권.
- 강혜원, 고애란 (1991). "여자한복의 인상형성 연구-디자인의 변형과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5호 2권.

- 고정민, 채금석 (1999). "생활 한복에 대한 의식구조와 선호도에 따른 디자인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호 5권.
- 김윤희 (1990). "여자 중학생의 교복에 관한 태도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혁주 (1998). "젊은층의 생활한복에 대한 의식조사." *광고정보* 212호.
- 박정희 (1998). "여고생의 교복착용 태도와 의복행동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준영, 김용숙 (2003). "생활한복의 착용 상황에 따른 이미지와 구매의도." *한국복식학회지* 53호 3권.
- 윤현정 (2002). "여고생 교복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원순 (2003).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또래 수용과 의복태도와의 관련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희 (1996). "남여 고등학생의 교복만족도, 의복관심도, 자아개념 : 강원도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영자, 류은정 (2001). "생활한복의 구매의상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생활한복 이미지, 추구혜택, 위협지각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호 6권.
- 정은희, 이은영 (1992). "의복이미지의 구성요인과 평가 차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6호 4권.
- 정인희, 조효숙, 이희승 (1998). "생활한복의 구매실태 연구." *한복문화* 1호.
- 정현주, 목은혜, 한유정 (2002). "우리 옷 교복 착용 여고생의 교복만족도와 의복행동의 관계." *한국의류학회지* 26호 5권.
- 정현주 (2002). "우리 옷 교복 착용 남자고등학생의 교복만족도와 이미지 평가." *한국의류학회지* 26호 7권.
- 최은영 (1999). "생활한복의 구매동기에 관한 연구-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지* 45호 0권.
- 최은영 (1999). "생활한복의 채택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위협지각과 자기이미지를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지* 42호 0권.
- 최현주 (1999). "중등학교 여학생 교복에 생활한복 도입을 위한 학생선호도 조사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Higgins, Vookles, Strauman, Berenstein & Chaken (1991). "Slef-Discrepancies and Vulnerability to Body Disordered Eat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